

第31回
(休會中)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4年3月24日(木) 午後1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綱領案審査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綱領案審査의件(吳案泳議員外23人發議) 1面

(13時05分 開議)

○議事係長 鄭益煥 지금으로부터 第31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會議을 開議하겠습니다.

(國旗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九 運營委員會 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시고 오늘會議에 參席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運營委員會는 성북구의회가 생동감 넘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審査·討論·決定하며, 여러 議員님들의 效率의인 議政活動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밑바침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의정 4次年度인 올해에도 여러 委員님의 積極의인 努力을 根幹으로해서, 한층더 成熟된 회의, 住民의 期待와 熱望에 副應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誠意를 다하여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協調가 있으시길 當付드립니다.

오늘會議에서 審査할 案件은 吳案泳議員 외 23人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綱領(案)”이 되겠습니다.

現在 14분 委員께서 參席하셔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1回 城北區議會臨時會休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綱領案審査

의件(吳案泳議員외23인 發議)

(13時09分)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綱領(案)審査의件”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은 城北區議員으로서 法令을 遵守하고 區民의 權益과 福利를 增進하며 地域社會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그 職務를 성실히 遂行할 것을 區民앞에 다짐하고자 하는 趣旨로서 發議되어 오늘 審査案件으로 上程되었습니다.

먼저 本案件은 本議會에서 提案說明을 들었으나 補充說明이 있다면 本案件을 發議한 議員님들을 대표하여 吳案泳 副議長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吳案泳 副議長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副議長 吳案永 간단히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連日 繼續되는 議政活動에 애 많이 쓰십니다.

그저께 본안건이 本會議에 上程이 되어 오늘 運營委員會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倫理綱領은 城北區議員으로 就任하면서 個人이 議員宣誓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宣誓文에 記名捺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宣誓文은 議員으로 就任할 때 단 한번 朗讀했고 任期中에는 이 宣誓를 共同으로 들을 機會가 없습니다. 그래서 宣誓의 精神을 再確認하고 遵守하기 위해서 行動指標를 具體的 條項別 前文과 5개 條項을 大別해서 成文化한 것이 바로 이 議員倫理綱領입니다. 이 倫理綱領을 年初 始務式때라든지 이 다 음에 議會開院紀念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會

議 開會式 등 議會의 큰 行事때에 朗讀함으로써 議員의 職務를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精神姿勢를 가다듬자는데 그 制定의 目的이 있습니다. 우리가 恒常 生活에서 느낍니다만은 영롱한 閃光을 발하는 銳利한 보검도 닦지 아니하고 갈지 아니하면 무디어지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오색이 찬란하게 빛나는 현란한 금은보화도 닦지 아니하고 묻어두면 그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恒常 精神을 차리기 위해서 自己의 信條나 座右銘을 成文化해서 去處하는 방이나 마루에 붙혀놓고 아침 저녁으로 再 確認하고 할때 그 사람의 修養이 빛나게 됩니다. 家庭에 家訓이 있고 學校에 學訓이 있습니다. 會社에는 社訓이 있습니다. 또 各種 憲法團體에도 倫理綱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城北區議會는 議會로써 3年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倫理綱領이 없어서 이것을 아쉽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절대 다수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만들자하는 合意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本文 內容은 5個 條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읽어 보시면 아실것이고 이번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이것을 通過시켜서 우리 城北區議會의 名譽를 드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吳案泳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答辯의 順序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答辯 方法은 一括質疑·一括答辯 方法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海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海善委員 提案說明을 한 吳案泳副議長님, 區民을 모아놓고 年中行事 때 倫理綱領을 낭독한다고 하는데 꼭 倫理綱領을 만들면은 그런 方法으로 運營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副議長 吳案泳 議會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 朗讀한다는 것은 規定을 議會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徐海善委員 정해놓고 이것은 낭독할 수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런 얘기군요.

○副議長 吳案泳 議會에서 議員들이 정하면 되죠.

○委員長 金炯九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네, 申宗鉉委員님.

○申宗鉉委員 申宗鉉委員입니다. 副議長님, 이것이 採擇이 되면은 아까도 설명을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文句上으로 成文化가 되는것입니다. 成文化라 하는 것은 條例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慣例上으로 봐서 우리가 會期때마다 本會議라고 하면은 會議때마다 朗讀하는 것이 原則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關係는 우리 議員들이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詳細하게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吳案泳 네, 지금 徐海善委員님께서 質問하신 關係가 같은 것인데 우리 倫理綱領은 정해놓고 그것을 行事하고 驅使하는 것은 委員會에서 倫理委員會가 構成이 되니까 倫理委員會에서 이렇게 해 보자는 안을 가지고 本會議에 通過시켜서 本會議에 提示해 가지고 많은 議員들이 어떻게 하자는 意見에 따라서 活用하게 됩니다.

○申晉玉委員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倫理 綱領을 지금 副議長님 말씀하시기는 칼도 갈지 않으면은 칼에 대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會議때마다 倫理綱領을 朗讀을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平統의 예를 들면 이상하지만은 平統의 倫理綱領은 每會議때마다 綱領朗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綱領은 어떤 뜻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恒常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倫理綱領을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 다음 臨時會나 定期會때 每會議때마다 綱領을 朗讀해야 하는 꼭 필수적인 條件이 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綱領을 만들어 놓고 會議때마다 朗讀을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委員님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實績爲主로 이런 綱領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강령

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道德的인 면이라든가 어떠한 모든 순리에서 어긋났을 때 잘못을 깨우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道를 가고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規律이나 規則으로써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城北區에서는 아직 우리 委員님들이 어떠한 品位나 位相에 대해서 議政活動 내지 議會活動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했을 때에 굳이 이것이 他區도 아니까 우리區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品位를 낮출 必要가 뭐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윤리라는 자체를 갖다가 副議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副議長 吳榮泳 倫理는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한 道理입니다. 道理이고 綱領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데 큰 줄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國會議員도 선서를 하고 倫理綱領이 있고 또 倫理綱領을 지키는 倫理綱領實踐規範이 있습니다. 市에도 있고 또 다른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平統에 예를 드셨는데 平統은 定期總會하고 거기 큰 會議때 1년에 두세번 읽게 되어 있고 月例會는 안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읽고 안읽고 하는 問題는 重要的 問題는 아니고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以後에 制定된 뒤에 倫理委員會가 다룰 問題이고 根本的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이 案을 提示한 것입니다. 또 다른 委員님들이 發議하신 議員들이라든지 여기에 贊成하신 議員님들도 바로 필요하다 時期適切하게 必要하고 우리가 地方自治를 定着시키는데 천상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 綱領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全議員들이 많은 절대 多數議員들이 同調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兪鎮武委員님, 하세요.

○兪鎮武委員 저 兪鎮武입니다. 저희가 議員으로 誕生되어서 지금 3年만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 個人으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 다스리는 것이 賢明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議員들이 정말 所信있게 생각해서 진작에 정해졌어야 될 것을 이제 다룬다고 생각하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當然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진작에 우리가 다루었어야 될 일을 지금 뒤늦게 다루는 것은 조금 議員의 立場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이번에는 質問만 해 주세요. 討論은 나중에 할 것이니까 지금은 質問時間이니까 質問하실 委員님 안계시죠.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 時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贊反討論을 하겠습니다. 먼저 反對討論 하실 委員님께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天浩委員 反對보다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委員長 金炯九 李天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天浩委員 아까 몇몇 委員님들께서는 이것을 갖고 本會議에서 낭독하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이것이 通過되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약간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을 通過시키느냐, 안시키느냐인데 물론 倫理綱領을 制定하시느라고 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通過시키느냐, 反對를 하느냐 이런 것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3名 議員이 이것을 發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여기 1, 2, 3, 4, 5項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요전에 申晉玉委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項에 우리 議員은 名譽를 尊重하고 公職者로서 不正한 이득을 圖謀하거나 不當한 幹旋을 꾀하지 아니 하며, 이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것을, 不正한 일들을 圖謀했고 不當한 幹旋을 꾀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本會議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과 시키기 전에 이 字句에서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全體 通過시키자 이러기 전에 勿論 이것을 制定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도 물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도 약간 우리가 修正해야 할 部分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議員의 명예를 尊重하고 公職者로서 不正한 利得을 圖謀하거나 不當한 幹旋을 꾀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빼고 清廉과

勤勉해서 品位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번부터 나와가지고 5項까지 다해서, 또 5項에도 公私行爲에 관하여 언제든지 分명한 責任을 진다 했는데 私的인 것은 個人의 프라이버시(Privacy)도 있는 거고 하나까 그런것을 좀 細部的으로 해가면서 制定을 하면 어때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委員長 金炯九 趙基燦委員님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저는 倫理綱領의 基礎를 정하면서 晩時之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俞鎮武委員이 發言한대로 늦었지만 이것이 至當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社會風潮가 과거의 낡은 腐敗라든가 諸般矛盾된 이런 事項을 剔抉하고 깨끗이 해나가자 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일고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일고 있고 그런 運動이 提起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不正을 했다가 과거의 矛盾된 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倫理綱領을 宣言的意味에서 하나의 行動指針이 될 수 있고 行動綱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한다는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할 것이 늦었다 이런 意味에서 倫理綱領은 필히 있어야 한다, 現在 家庭에서 正直해라, 誠實해라, 거짓말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行動指針으로 삼고 行動規範으로 삼아서 정한 것이 家訓도 그렇고 諸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一種의 行動指針입니다. 때문에 倫理綱領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原則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字句修正 問題 같으면 우리 實情에 맞게 修正할 수도 있다. 李天浩委員님 말씀하신대로 字句修正은 우리 實情에 맞게 修正을 해서 반드시 城北區議會 初代議會가 이런 倫理綱領을 지키고 그들이 스스로 그야말로 깨끗한 行爲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하는 眞意를 歷史에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必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晩時之歎이 있지만은 原則적으로 倫理綱領은 採擇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우리 實情에 맞게 字句修正을 할 必要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申晉玉委員님

○申晉玉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된 얘기

지만 '91년도 4月 15일날 住民들의 代表者로서 우리가 地方自治의 法令을 遵守하고 區民의 權益과 福利를 增進하면서 地域社會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 職務를 誠實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선서한 후에 더구나 初代議員으로서 참 우리가 微賤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서 議政活動을 繼續해오면서 특히나 無報酬 名譽職으로서의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 나름대로 最善을 다한다는, 우리 議員님들이 3年동안의 議會活動을 하면서 議員의 身分을 利用해서 不當한 利得이나 不當한 斡旋行爲를 한 것도 없으며 또 해서도 안됩니다. 分明히 저희가 宣言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倫理綱領을 만듦으로 해서 마치 우리 議員님들이 住民들로부터 指彈의 對象이나 된 것처럼 對內外的으로 議員님들의 品位와 位相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이러한 綱領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고 또 현재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活動에 制限을 주는 印象을 주는 것이며 또 이 倫理綱領이라는 것은 道德의이나 어떤 顔面에 缺如되었을 때 倫理로써 그 잘못을 깨우쳐서 이것으로 부족할때는 規律이나 規則으로 制限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매년 우리가 會議때 朗讀을 했던 얘기지만 지금 學校에는 敎訓이 있고 가정에는 家訓이 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倫理 내지 綱領에 앞서 道德입니다. 道德이 缺如되었을 때에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들어라. 이것이 잘못됐을때 부모님이 야단을 하고 매질을 하는 이때부터가 綱領 내지 倫理에 벗어난 어떤 制約的인 規則을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 벌도 주고 또 학교에서는 學則에 따라서 罰도 주는 겁니다. 우리가 道德과 어떤 倫理綱領에 대해서는 엄연히 區分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分明히 道德이 缺如되었을 때 倫理 내지 綱領, 倫理綱領이 따라서 어떤 制限的인 行動半徑에 抵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制度圈내에서 다 組織人들입니다. 充分히 우리가 基本的인 道德의 良識이 주어졌고 人格體로서의

주민들의 代表로서 우리가 認定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어는 면으로 봐도 3年동안을 겪어왔지만 어느 議員님이 우리 議會나 議員님 身分을 利用하고 또 議會의 名譽나 位相을 이렇다하게 실추시킨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他區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했을때 이것을 다른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지 않느냐, 늦지 않았느냐, 아직은 우리 城北區 議員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最善을 다하고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서 議政活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다른 委員님 討論하실 委員님? 예, 安傑瑤委員님.

○安傑瑤委員 安傑瑤委員입니다. 먼저 吳案泳 副議長님께서 이런 훌륭한 城北區議會 倫理綱領案을 提出해주신 것에 대해서 眞心으로 感謝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李天浩委員님과 趙基燦委員님께서 附言說明을 너무나도 至當한 말씀으로 잘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全的으로 同感의 表示를 드리면서 우리 申晉玉 幹事님께서 거기에 대한 反對立場을 해주셨는데 그 道德이 잘못되어서 倫理綱領을 採擇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分명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法이나 常識의 倫理綱領 내지 이런 規範事例가 어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不正한 方法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이것은 어떤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자는 안으로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城北區議會 44名 議員이 뭘 하나라도 잘못이 없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해보자고 우리 初代議員 뿐만이 아니라, 2대, 3대 議員들이 이런 先例를 따라서 더 잘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改善하기 위한 立場에서 이런 倫理綱領을 提出해 주신 것으로 저는 채택하고,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單一化로 採擇해서 通過를 시켜서 우리 城北區議會 倫理綱領案이 廓正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韓春子 委員님 말씀하세요.

○韓春子委員 우리 安傑瑤委員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倫理綱領을 하는 自體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다 反對는 아니실겁니다. 왜냐하면, 이 內容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無報酬 名譽職으로 奉仕를 하면서 또 우리가 法을 만들어서 물론 잘해보겠다는 것만은 좋지만은 여기 4項에 보면 '우리 議員은 名譽를 尊重하는 公職者로서 不正한 利得을 圖謀하거나 不當한 斡旋을 꾀하지 아니하며 清廉과 勤勉으로 品位를 지킨다'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요, '不正한 利得을 圖謀하거나 不當한 斡旋을 꾀하지 아니하며'하는 이 本文말과 清廉이라는 그 한마디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기왕이라면 그런 말을 빼고라도 우리 議員은 名譽를 尊重하는 公職者로서 清廉과 勤勉으로 品位를 지킨다 하면 부드럽고 좋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또 5項을 보면 '우리 議員은 責任있는 區議員으로서 區民에게 모든 公私行爲에 관하여 언제든지 分명한 責任을 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은 責任있는, 責任있는 區議員으로서 하면 벌써 그 뒤에 언제든지 責任진다는 게 다 含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重複이 되어있는 事項이고, 저는 이 案의 採擇이 여러분들의 意思에 따라서 좋다고 한다면 反對할 理由도 없겠지만은 그런 문구는, 議員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品位損傷을 하는 文句는 削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돈수 위원님.

○安敦洙委員 安敦洙입니다. 지금 1, 2, 3, 4, 5項이 있는데요, 물론 韓春子委員님이나 李天浩委員님께서 4項, 5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다 좋은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좀 4, 5項을 字句修正하는 것 보다는 1, 2, 3項으로 簡單하게 해서 1項이나 2, 3項에도 우리가 位相 내지는 責任 있는 議會 議員으로서의 직분이랄까 奉仕랄

까 하는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항, 5항을 수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1, 2, 3항 정도로 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徐海善委員長 말씀하세요.

○徐海善委員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倫理綱領 採擇하고 또 字句修正도 大體的으로 조금 손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이 倫理綱領을 採擇하는 안으로 同意를 하고 여기 우리 運營委員 15名중한 세분이나 네분이 이것을 提案한 副議長과 여기에 대해서 相當히 상의할 수 있는 분으로 하여금 오는 토요일, 내일모레까지 본회의에 안을 넘기기 전에 字句修正을 하는 것으로 同意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金承泰委員 저는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다들 찬성을 해주시고 해서 좀 마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날 本會議에서 議案上程될 때 23분이라는 분이 署名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3분이라면 이미 過半數議員들이 倫理綱領을 만드는데 찬성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들이 많이 이 안에 대해 생각들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까도 조창현 박사님 懇談會에서 서로 의원들간에 왜 좋지 않은 行動들을 하느냐라는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듯이 優先 이것이 贊·反討論이, 勿論 자기의 意見을 다 開陳하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의 議員들이 이 案에 대해서 23명이 贊成을 했으면 역시 나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贊·反討論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우리 3年동안에 보면 서로들 어떤 案에 대해서 자꾸 서로 모양들 나쁘게 만드는 傾向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안은 충분히게들 말씀을 하셨는데 字句修正은 좀 해야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字句修正을 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방향인 것은 서로 격려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贊·反이 그날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면 음해도 서로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徐海善委員뿐만 아니라 다들 字句修正부터 얘기하셨는데 字句修正은 사실 順序상으로 通過시켜놓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예. 趙基燦委員長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徐海善委員님이 提議하신 字句修正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發議者인 吳宗泳 副議長을 中心으로 해서 字句修正 小委員會를 構成하시고 2次的인 問題는 아까 倫理綱領을 會議때마다 朗讀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語不成說입니다. 그런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實質的으로 倫理綱領을 예를 들어서 議員手帖이라든가 議會 事務室이라든가 걸어 놓으면 그것으로서 倫理綱領은 充分한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會議때마다 朗讀한다는 것은 日帝時代때의 軍部 그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議員手帖이나 事務室에다 걸어놓으면 그것으로 充分히 目的은 達成된 것입니다. 그렇게 整理를 해서 決定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韓春子委員 그리고 이 안에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이런 綱領을 만드는 것은 만약에 우리 임기가 끝나더라도 永遠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우리 후배에게도 옳고 그른 말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강령같은 것 솔직히 함부로 초안을 해서도 안되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23명의 議員이 署名捺印을 하고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可及의이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담겨질 수 있게끔 이것을 完全하게 字句修正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案을 내서 좋은 文句를 만들어서 남이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倫理綱領을 만드는데 저는 同意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俞鎮武議員 오늘은 일단 아까 얘기대로

倫理綱領案은 通過시키고 오늘 여기서 小委員會면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이 字句修正 3개 文句를 含蓄性있게 構成을 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徐化錫委員 採擇만 하는 것이지 通過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採擇만 하기로 하고 字句修正을 한 다음에

(「맞아요」하는 이 있음)

○趙基燦委員 委員長님 字句修正委員會를 누구 指名해서 決定을 하셔야죠

○委員長 金炯九 오늘 여기서 잠깐 하면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韓春子委員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만들때 運營委員會에 副議長님도 계시지만 議長님도 同參해서 같이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셔야 돼요

○委員長金炯九 副議長님 계시니까 議長님하고 副議長님하고 또 하실 意向이 있으신 분 나오세요.

○趙基燦委員 委員長님 可及的이면 저는 이것이 倫理綱領 우리 城北區 전체의 의원 이미지를 만드는 問題기 때문에 可及的이면 常任委員長도 參與를 시키고 議長도 參與를 시키고 각 분과에서도 代表 2~3명으로 해서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歷史에 길이 남을 것이니까 意味를 附與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徐海善委員 委員長 지난번 臨時會 會期가 시작되면서 이 倫理綱領案은 우리 運營委員會로 回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運營委員長하고, 또 여기에 지금 提案說明을 한 부의장하고 우리 運營委員 小委員會에서 구성을 해서 常任委員長 또 의장 불러놓고 이렇게 審議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하고 보고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걸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權限을 굳이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擴大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會를 각 常任委員會別로 5명씩 여기 계시니까 한분씩을 하고 우리

幹事하고 저하고 이렇게 參席하면 되겠죠?

○趙基燦委員 可及的이면 運營委員會에서 두서너명 더 넣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金炯九 5명 程度면 되지 않겠습니까?

○趙基燦委員 核心的으로 이 問題를 運營委員會에서 다룰 事項이니까 可及的이면 運營委員이 많이 들어가시고

○李天浩委員 運營委員이 각 常任委員會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申晉玉委員 지금 修正同意 쪽으로 集約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의 節次上的 方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現在 修正同意하자 이렇게 意見을 낼게 아니라 정식 修正同意案이 採擇이 되어서 運營委員會에서 採擇이 됐다는 것이 남아야 됩니다. 現在로서 우리가 하자하는데 어느 분이 修正同意 案件을 정식으로 내세워서

○金承泰委員 그것은 分科委員會에서 字句修正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字句修正을, 이것이 修正同意案이 아니고 字句修正이거든요. 字句修正이니까 字句修正해서 本會議에다 올리면 되니까 節次를 그냥 字句修正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金榮植委員 申幹事님 말씀대로 全體 修正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字句修正을 한 그 대로

○金承泰委員 字句修正만 하는 거니까 複雜하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小委員會는 市民福祉에서 우리 安敦洙委員님이 幹事니까 나오시고 地域開發에서는 우리 安傑瑢委員님, 나오시면 되고 行政委員會에서는 徐海善委員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3분하고 우리 申晉玉幹事하고 저하고 다섯 사람이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吳榮泳副議長님은 當然한 것이고.

○安傑瑢委員 아까 韓春子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 議長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다른 區議會에서도 倫理綱領을 採擇한 議會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그 議會에서도 어떤 倫理道德上的 問題가 있고 議員들이 잘못해서 採擇된 것만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倫理綱領 다른 區議會의

採擇案도 우리가 參考的으로 檢討하고 確認해서 만드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봐서 첫째 總體的인 責任을 지고 계시는 議長님이 계시니까 같이 參席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運營委員會에서 倫理綱領案에 대하여 26일까지 字句修正 審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26일까지 修正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會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第31回 臨時會 休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3時44分 散會)

○出席委員 14人

金 炯 九	申 晋 玉	安 傑 瑤
安 敦 洙	俞 鎮 武	李 天 浩
趙 基 燦	韓 春 子	金 承 泰
金 榮 植	朴 演 洙	徐 海 善
徐 化 錫	申 宗 鉉	

○參席議員

吳 案 泳